

중국 흑룡강성의 구어 만주어 조사를 다녀와서

권 재 일*

1. 머리말

이 글은 1997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나와 나의 일행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구어 만주어(口語滿洲語)의 실태와 연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지 조사한 여정을 기술한 글이다. 현지 조사 보고는 그 여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자료를 남겨, 이를 통해 다음에 이루어질 현지 조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가능한 한, 우리의 여정을 객관적으로 빠짐없이 적고, 현지 조사의 의의와 문제점을 밝혀, 앞으로의 현지 언어 조사에 실제적인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번 현지 조사의 목적은 중국 헤이룽강성의 구어 만주어 실태를 조사하여 그 언어적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구어 만주어에 대한 현지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구어 만주어의 실태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어휘를 조사하고, 구어 만주어에 대한 연구 현황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지 조사는 앞으로 계속될 이 지역의 만주-통구스 제어 조사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어를 비롯한 알타이제어 상호간의 언어유형론적, 언어접촉사적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떠나기 앞서 가능한 한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한 중국 지역의 만주-통구스제어에 대한 언어 조사인 만큼 시행착오가 컸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하여, 중국 헤이룽강성의 가장 대표적인 만주-통구스어 연구기관인 만어연구소(滿語研究所)와 본격적으로 학술 교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점, 중국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어 만주어 연구의 현황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 구어 만주어 사용 지역인 푸위(富裕)현 썬자쯔(三家子)촌과 아청(阿城)시의 한 만주족 마을을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상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 그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리고 중국 지역의 학술 조사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은 큰 수확이라 하겠다.

이제 출발하기 전의 준비 사항부터 시작해서 하얼빈(哈爾濱) 도착, 만어연구소 방문, 푸위현 썬자쯔촌 방문, 아청시의 만주족 마을 방문, 하얼빈의 민족박물관 방문 등에 대하여 차례로 기술하기로 하겠다.

한편 이번 현지 조사에 대한 학술 보고서는 “중국 흑룡강성 口語 滿洲語 조사 연구”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여, 연구비 지급기관인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에 1998년 8월에 이미 제출하였다. 다른 보고서들과 함께 단행본으로 곧 출간될 예정이다.

2. 떠나기에 앞서

평소 한국알타이학회 회장인 성백인 교수는 한국어를 비롯한 알타이제어 상호간의 언어유형론적, 언어접촉사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알타이제어에 대한 현지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언어의 현지 조사 연구는 인적,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일이라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1996년, 당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으로 있던 성백인 교수는 서울대학교 당국에 이러한 현지 조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1997년 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아문화연구소(당시 소장: 김시준 교수)에 동북아시아 문화에 대한 현지 조사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곧 동아문화연구소는 언어, 문학, 역사, 민속 등 여섯 개 과제를 정하여 각 과제당 천만원의 연구비를 배정하였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를 연구 책임자로 하는 “중국 흑룡강성 구어 만주어 현지 조사 연구”였다.

나는 곧 바로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나를 책임자로 하고, 알타이어학 및 역사언어학을 전공하며 가능하면 현지 언어 조사에 경험이 많은 젊은 학자들로 연구원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마침 한국알타이학회 산하 어원연구회에서 현지 언어 조사를 위한 『언어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던 때였는데, 이 일에 관여하는 학자 중에서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고동호

박사, 정도상 박사, 연구동 박사를 접촉하여 흔쾌히 참여를 승낙 받았다. 고동호 박사(1959년생, 서울대학교 강사)는 알타이어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문어 만주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제주방언을 현지 조사한 경험이 풍부하여 언어 조사를 하는 데에 가장 적임자이었다. 그는 학문적 능력 못지 않게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탁월한 행정가이기도 한 장점이 있다. 정도상 박사(1960년생, 서울대학교 강사)는 핀-우그르어학을 전공한 역사언어학자이다. 핀란드에 있으면서 러시아를 비롯하여 여러 이웃 나라에서 현지 언어를 조사한 경험이 풍부하다. 평소 모든 일에서 황소 같은 추진력을 보였는데, 이번 답사 기간 동안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순간순간 잘 처리하는 기지를 보였다. 연구동 박사(1963년생, 서울대학교 강사) 역시 문어 만주어를 중심으로 알타이어학을 연구하는 역사언어학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몇 년간 방언학을 강의하면서 현지 조사 언어학에 깊은 이해가 있었다.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에 능통하다. 그의 중국어는 이번 현지 조사 기간 동안 크게 돋보였다.

다음으로 중국 헤이룽장성의 관련 기관과 우리를 연계해 주며, 조사 기간 동안 통역 및 안내를 담당할 중국 현지인을 물색하였다. 헤이룽장성 수도 하얼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헤이룽장성 민족사무위원회 소수민족어문사업판공실 부주임 김기주(金基柱) 선생이었다. 이 분은 1997년 여름 한국 국립국어연구원 초청으로 보름간 한국에 와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연수를 받고 왔는데, 그 기간 동안 나와 만나 인사를 나눈 바 있다. 그때 인상으로 매우 진지하고 성실한 분이어서, 이 분과 우선 접촉하기로 하고 1997년 3월 3일 편지를 보냈다. 헤이룽장성 관내에 “조선족이 조선어를 사용하는 정도로, 만주어를 잘 알고 사용하며, 중국어로도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 언어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점,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이 바로 푸위현 썬자쯔촌인데, 사실이 그러한지, 하얼빈에서 거기까지의 교통편은 어떠한지, 그리고 6월말쯤에 방문하고자 하는데 우리를 안내하고 통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줄 헤이룽장성의 관련 기관을 소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었다.

김기주 선생은 곧 바로 답장을 보내 주었다. 첫째는 자기가 모든 준비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과 둘째는 하얼빈에서 푸위현 썬자쯔촌까지의 자세

한 교통편에 대한 내용이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줄 헤이룽장성의 관련 기관으로 헤이룽장성 만어연구소(소장: 자오아핑(趙阿平))를 소개해 주었다. 곧 이어 4월 1일에 우리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이름으로 만어연구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소수민족어문 정황 조사 연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소수민족어문 정황 조사 연구 협조 요청서

다음과 같이 본교에 재직 중인 학자가 헤이룽장성 관내에서 소수민족어문 정황을 조사할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니, 초청장을 발급하여 보내 주시면, 학술 교류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방문 목적 : 헤이룽장성에서 사용되는 만주어의 정황을 조사하여, 만주어와 한국어의 연구와 교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방문 일시 : 1997년 6월 20일 - 6월 30일
3. 방문 장소 : (1)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헤이룽장성 만어연구소
(2) 헤이룽장성 푸위현 썬자쯔촌
4. 방문 학자 : 권재일, 고동호, 정도상, 연규동

곧바로 답장이 왔는데, 양측이 공동 조사를 하되, 조사 일정은 7월 중순으로 늦추며, 조사 비용은 우리측이 전담하며, 발표는 공동 명의로 하자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5월 3일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시 보냈다. 첫째, 만어연구소와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마다 학술 교류하며, 협조를 얻고자 한다. 둘째, 조사 일자를 7월 중순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사정으로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가장 적합하며, 7월 중순은 어려운 편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1주일 정도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 셋째, 조사 비용에 대하여는 조사 기간 동안, 만어연구소에서 참여하는 학자 2명까지의 경비는 우리측에서 부담하며, 공동 조사 연구한 내용은 각각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은 무방하되, 우리측에서는 한국에서 발표할 때, 만어

연구소의 공동 연구 사업이었음을 밝힌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런데 갑자기 김기주 선생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만어연구소는 일정 조정이 대단히 어렵다 하여 협조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니, 헤이룽장성 민족사무위원회 산하 민족연구소(소장: 김삼채)와 연계하는 편이 낫다고 다시 제안해 왔다. 민족연구소의 김삼채 소장은 조선족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다는 내용이다. 갑자기 관련 기관을 교체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무엇인지 잘 모를, 민족사무위원회, 만어연구소, 민족연구소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몇 차례의 연락이 더 있은 후, 다음과 같은 “학술교류 합의서”(한글본, 중국어본 두 가지)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과 헤이룽장성 민족연구소장이 서명하였다. 여기에는 민족연구소의 박연옥 연구원의 협조가 컸다. 그는 몇 해 전 한국에 와서 한국어 연수를 받은 적이 있으며, 특히 성백인 교수, 이익섭 교수와 친분이 있다.

학 술 교 류 합 의 서

한국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와 중국의 헤이룽장성 민족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학술교류에 관해 합의한다.

1. 학술교류 명칭 : 헤이룽장성 소수민족 어문 조사 연구
2. 학술교류 목적 : 헤이룽장성 소수민족 어문의 정황을 조사하여, 한국어와의 관련을 연구하여 상호 학술교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3. 학술교류 계획 : 1997년부터 3개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1997년도 : 만주어
1998년도 : 나나이어
1999년도 : 어윙키어
4. 학술교류 상호 협조 사항
 - (1) 조사·연구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2) 헤이룽장성 민족연구소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전 준비 및 조사 지역, 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 (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는 조사·연구와 관련한 소요경비 부담에 대하여 협조한다.
- (4)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1997년 5월 25일

중국, 헤이룽장성 민족연구소장

한국,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그런데 6월초가 되도록 초청장이 발급되지 않았다. 몇 차례 김기주 선생에게 연락해 보았는데, 하루 이틀 기다려 보자고 했지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출발 날짜를 며칠 앞둔 우리는 우선 일반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하기로 결정하고, 여행사를 통해 일반 비자를 신청, 발급 받았다. 출발하기 전 김기주 선생으로부터 최종 연락이 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초청장 관련 서류가 헤이룽장성 외사관공처에 제출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기 직전,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보류되었다. 둘째, 그러나 우리들이 오면, 자기가 여러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조사 연구가 성사되도록 하겠다.

결국 우리는 예정대로 1997년 6월 26일 떠나기로 결정하고, 『언어조사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관련 자료들도 차근차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출국을 결정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 “중국 지역에서 조사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의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명시적인 협조, 또는 고위 직책 인사의 묵시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을.

3. 서울에서 하얼빈으로

출발 전 우리 일행은 언어조사표를 마련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한국알

타이학회 산하 어원연구회가 마련하고 있는 『언어조사표』 가운데 “1,000 어휘 수준표”와 “3,000 어휘 수준표”를 각각 마련하고, 따로 “문법 조사표”도 준비하였다. 그리고 푸위현 쓴자쓰촌 만주어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 성과도 여러 문헌을 통해 미리 공부하였다. 녹음기와 건전지, 사진기 등도 겹으로 챙겼으며, 『알타이학보』 몇 권과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 영인본도 몇 권 포장하였다.

6월 26일 한국시간 오후 1 시, 우리 일행은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기 편으로 하얼빈으로 출발하였다. 마침 그 해 봄, 서울↔하얼빈 간 직항로가 개설되어 단번에 갈 수 있었다. 그 전 해 중국의 베이징(北京), 창춘(長春), 선양(瀋陽)을 다녀온 나로서는 다른 일행들에게 중국의 이런 도시를 구경시켜 줄 셈으로 서울→창춘→하얼빈, 혹은 서울→선양→하얼빈, 혹은 서울→베이징→하얼빈 등의 여정 중 한 가지를 잡으려 했으나, 일행 세 사람 모두 말하기를, 학술 조사에만 전념해야지, 그밖의 여정은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들의 진지함에 나는 다소간 긴장하였다.

서울을 떠난 지 2시간 25분만인 중국시간 오후 2시 25분에, 서울보다 더 무더워 보이는 하얼빈 공항에 도착하였다. 김포공항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일행들의 첫 마디와 함께, 우리는 드디어 하얼빈에 첫 발을 디뎠다. 출영객 틈에 김기주 선생의 얼굴이 보였다. 우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입국 수속을 밟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알타이학보』와 『청어노걸대』가 문제되었다. 한어(漢語)로 된 책이 아니라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어를 아는 검색대 직원에게 책 내용을 설명하고 통과하기는 하였다.

하얼빈의 공기는 탁하였다. 서울의 공장지대를 지나는 느낌이다. 승합차를 이용하여 우리는 헤이룽장민쥬관덴(黑龍江民族飯店)에 도착하였다. 하얼빈에서 몇 안 되는 고급호텔이라 한다. 한복 입은 모양새가 어색해 보이는 현관안내원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두 개의 객실에 두 사람씩 나누어 여장을 풀었다. 호텔 창 너머 쑹화(松花)강이 보인다. 쑹화강변의 타이양다오(太陽島) 유원지가 한가롭다.

첫째날 일정은 관련 기관 인사들과의 만찬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에서 만찬 초청자를 결정하였다. 만어연구소 소장, 전임 소장, 민족연구소 소장, 관련 직원, 헤이룽장성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소수민족어문사업관공실 주임 등이다.

그 가운데 민족연구소 소장, 헤이룽장성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은 조선족이라 하였다.

김기주 선생과 함께 우리는 만찬 장소를 민쭈판덴 3층에 있는 한국 식당으로 결정하였다. 이 곳은 지린(吉林)성 또는 지린성 옌벤(延邊)과는 달리 조선 식당이라는 간판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한국 식당이다. 오후 5시 30분, 만찬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우리는 호텔 로비로 나갔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만어연구소의 전임 소장 류징쎬(劉景憲) 선생이었다. 인사를 나누고 조금 있다가 바로 만어연구소 자오아핑(趙阿平) 소장이 나타났다. 우리는 우선 커피숍에 자리를 하였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다가 약간 웃기도 하였다. 통역을 맡은 김기주 선생이 다른 손님을 맞으려 호텔 로비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한참이 되어서야 김기주 선생이 상기된 표정으로 커피숍으로 들어왔다. 다른 모든 손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참석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순간, 우리의 조사 일정에 적신호가 들어왔구나 생각하였다. 만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자리를 옮겨 한국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 류 선생은 그런대로 음식을 잘 먹었으나, 자오 소장은 거의 못 먹는 듯 하였다. 그래서 중국음식을 따로 주문해 주었다. 중국음식을 이웃 식당에 주문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였다. 노래방 기계가 마련된 방이라서, 파할 무렵에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각자 한 곡씩 불렀다. 류 선생과 자오 소장은 만주어 노래를 불렀다. 나는 “섬마을 선생님”을 불렀지만, 내일부터 닥칠 불확실한 조사 일정에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저녁 만찬 비용은 550위안(元)이었으며, 호텔 숙박비는 방 하나에 364위안씩이었다. 김기주 선생에게는 그 동안 준비하고 앞으로 수고할 일에 대한 사례로 1,000위안을 지급하고, 따로 통역비 500위안을 지급하였다. 앞서 공항에서 호텔까지 승합차 샀은 200위안이었다. 한편 당시 환율은 중국 인민폐 1위안에 한국 돈 100원이며, 그리고 중국 연구원들의 월급은 대강 400위안에서 600위안 정도였다.

밤이 깊자, 도시는 조용하다. 서울에 전화를 걸려고 호텔 로비에 내려오니, 왁자지껄하게 한국어가 들린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많은가 보다.

4. 헤이룽장성 만어연구소 방문

아침이 밝았다. 6월 27일이다. 하늘이 무척 맑다. 창밖 큰길에는 자전거 행렬이 홍수를 이룬다. 호텔 1층 한국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다. 네 사람의 아침 식사비는 모두 75위안. 서울식으로 음식을 만든다고 자랑한다. 서둘러 만어연구소로 향하였다. 오늘 우리 일정은 만어연구소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조사 지역인 푸위현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9시에 만어연구소에 도착하였다. 주소는 中國 哈爾濱市 南崗區 清濱路 74號. 영문 표기는 The Heilongjiang Provincial Man Language Research Institute. 호텔에서 꽤 먼 거리였다. 도착해 보니 그곳은 다름 아닌 헤이룽장성 당교(黨校)였다. 헤이룽장성 당교 안에 만어연구소가 있는 것이다. 만어연구소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헤이룽장성 만어연구소라기보다는 헤이룽장성 위원회 당교 만어연구소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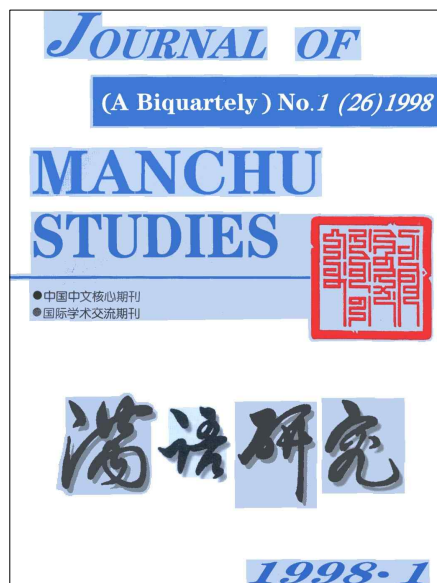
9시 20분 연구소 회의실에서, 당교 귀청린(郭成林) 부교장의 환영사로 방문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일행과 김기주 선생, 그리고 어제 만났던 자오 소장을 비롯한 연구소 모든 연구원, 그리고 당교에서 나와 통역을 맡은 직원(조선족)이 참석하였다. 귀 부교장은 길게 환영사를 하면서, 몇 해 전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인사도 곁들였다.

우선 자료를 서로 교환하였다. 우리측에서 한국알타이학회 기관지 『알타이학보』를 창간호부터 6호까지 한 질을 주었으며, 만어연구소 측에서는 그쪽 기관지 『만어연구』(滿語研究)를 창간호부터 24호까지 한 질을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책값에 비해 우송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여, 만어연구소에 넉넉잡아 10년치 송료를 맡겨 두었다.

이어서 자오 소장이 만어연구소를 소개하고, 중국에서의 만주어 연구 현황을 설명하였다. 헤이룽장성 만어연구소는 중국 공산당 헤이룽장성 위원회 당교 소속으로 1983년 창립되었다. 현재 소장은 자오아핑(1955년생)이다. 연구원들을 보면, 연구원에는 류징셴(전임 소장)이 있는데, 문어 만주어 전공이다. 부연구원은 자오아핑, 황시후이(黃錫惠)가 있는데, 자오 소장은 만어 문법이 전공이며, 황 선생은 지명 연구 및 언어사가 전공이다. 이들은 모두 만주족이다. 조연구

원에는 우바오주(吳寶柱)가 있는데, 그는 다구르족으로 비교언어학이 전공이라 하였다. 미남이다. 우리는 그를 홍콩 배우라 불렀다. 실습연구원에는 장리(蔣理)가 있는데, 그녀는 한족(漢族)으로 만주어-영어 대조 연구에 관심이 크다고 하였다. 특별초청연구원으로는 어윙키어 전공의 초크(朝克: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만주어와 나나이어 전공의 동강시(중앙민족대학 교수), 그리고 만주어 구어를 연구하는 푸위현 부현장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첫째, 구어 만주어를 조사하여 보존한다. 그러나 실제 현지 조사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고 하였다. 둘째, 만주어를 학술적으로 연구한다. 음운, 문법에 대한 연구를 비롯, 지명 연구, 문화와 언어의 관점, 사회와 언어의 관점, 비교언어학의 관점에 대하여 연구한다고 하였다.



<사진 1> 만어연구소의 기관지 『滿語研究』의 표지. 1985년에 창간된 이 잡지는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가 방문하였다고 하였다.

이 연구소의 기관지는 『만어연구』(Journal of Manchu Studies)로 1985년에 창간, 연2회 간행한다(사진 1 참조). 1997년 현재 모두 24권 발행되었으며, 20여 나라로 배포되고 있다. 1997년 현재 주편은 류징셴, 부주편은 자오아핑, 황시후이다. 1998년부터는 자오 소장이 주편을 겸하고 있다. 『만어연구』를 통해 연구 논문 323편을 발표했으며, 만주어 및 알타이제어에 대한 자료, 학술 소식 등을 소개하였다. 『만어연구』뿐만 아니라 단행본 5권을 발간한 바 있는데, 『滿語語法』, 『清史滿語辭典』, 『西域地理圖說注』, 『盛京刑部原檔』, 『崇德三年滿文檔案譯編』 등이 다. 그리고 대외 학술 교류에도 힘써 그동안 10여 나라에서 100여 명의 학자

앞으로 만어연구소의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현지 조사를 통한 구어 만주어 연구, 둘째, 3,000~5,000 개 정도의 표제어를 담은 만한일몽어(滿漢韓日蒙語) 대조 사전 편찬, 셋째, 문화와 언어, 사회와 언어, 지



<그림 1> 헤이룽장성 관내 구어 만주어 분포도

명 연구, 넷째, 헤이룽장성 내에 있는 60톤 분량의 당안(檔案) 번역 작업.

이어서 류 선생이 헤이룽장성 만주어에 대한 개황을 설명하였다(☞ 그림 1 참조). △ 푸위현 썬자쯔촌 : 1,000여 명 인구 중 절반이 만주족이며, 만주어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편이다. 썬자쯔촌 소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주어를 교육한다. △ 타이라이(泰來)현 이부치(依布氣)촌, 다싱(大興)촌 : 타이라이현 소재지에서 남방 100 리, 치치하얼 북방 90여 리에 있다. 300여 호에 2,000여 명이 산다. 인구 중 만주족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만주어 화자는 60여 명이나, 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헤이허(黑河)시: 아이후이(愛輝)현 다우자쯔(大五家子)지방, 쑤우(孫吳)현, 쑤커(遜克)현 자인(嘉蔭) △ 치치하얼(齊齊哈爾市)시 메이리쓰(梅里斯)구 : 다구르족 중 만주어 화자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시버족(錫白族)을 제외한 구어 만주어 화자 수는 약 400여 명 정도이고, 이들 중 자연스럽게 만주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화자 수는 정말 얼마 안된다.



<사진 2> 만어연구소 정문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오른쪽으로부터 고동호, 정도상, 연구동, 우바오주, 자오아핑, 필자, 류징센, 장리, 황시후이.

이어서 우리측에서 내가 한국에서의 알타이어학 및 만주어학의 연구 성과와 현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양측이 앞으로 만주어 연구에 공동 노력하고 협동하기로 다짐하였다. 우리는 만어연구소 방문을 통하여 중국의 만주어 연구 현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중국측과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약 세 시간 정도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서 당교 정문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사진 2 참조).

낮에는 귀 부교장이 당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베풀었다. 푸짐한 중국 음식이 마련되었다. 중국 경험이 없었던 다른 일행들은 음식의 양과 가짓수에 놀랐다. 더 놀란 것은 대낮에 강권하는 술이었다. 권하는 술을 거절하면 정(情)을 거절하는 것으로 몰아 붙이니, 모두가 어쩔 수 없었다. 일행 모두가 취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얼빈역으로 출발하였다. 당교 승합차로 홍콩 배우 우마오주 연구원이 배웅하였다. 무거운 우리 가방을 승합차에 싣고 내리고 도와 주었다.

5. 하얼빈에서 푸위현으로, 쟄자쯔촌 방문

6월 27일 오후 1시 30분, 하얼빈역에 도착하였다. 역 광장은 꽤 넓었다. 생김새가 꼭 부산역 같았다. 무더웠다. 안중근 의사가 생각났다. 바로 그 역에 우리가 왔구나 생각하였다. 푸위현으로 가는 침대기차를 탔다. 오후 2시 18분 출발하였다. 하얼빈에서 푸위(富裕)까지 침대기차삿은 124위안, 129위안이었다. 왜 두 종류인지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침대 위칸, 아래칸의 차이일까?

점심 때 마신 술과 더운 바람 뿜어 내는 선풍기 때문에 일행 가운데 두 사람은 몸살이 났다. 감기일지도 모른다. 일행들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해 보기도 하고, 차창 밖에 펼쳐지는, 가도가도 끝이 없는 벌판, 지평선을 보기도 한다. 다칭(大慶), 치치하얼 등 큰 도시도 지나갔다. 다칭 하늘의 불꽃이 인상적이다. 석유를 캐내는 도시이다. 기차가 출발한 지 다섯 시간 반 만인 저녁 7시 40분에 푸위역에 도착하였다. 비록 다섯 시간 반의 여행이었지만, 일행은 모두 지칠 대로 지쳤다. 푸위역은 우리 나라 시골 군청 소재지에 있는 역 정도 되어 보였다. 역 광장에는 자전거와 인력거가 뒤엉켜 있었다. 역 광장 지나 큰길가에는 노점상이 온갖 과일, 야채, 잡화를 펼쳐 놓고 시끄럽다. 두리번거리는 우리 앞으로

매우 남루하게 차려 입은 한 남자가 자전거를 끌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푸위현 인민정부의 직원으로, 우리를 마중하여 숙소로 안내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였다. 순간, 푸위현 인민정부가 우리를 배려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배려를 한다면, 좀더 말쑥한 직원이 나와서 그럴 듯하게 안내하던가, 배려하지 않는다면, 아예 우리의 도착을 무시해 버릴 것이지. 이러한 배려 태도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판단되지 않았다. 아무튼, 알쏭달쏭한 가운데, 우리는 숙소로 안내되어 갔다. 푸위역 광장 건너편 큰길가에 있는 귀잉푸위뤼서(國營富裕旅社)이다. 이 여관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 곧 넘어질 것 같은 건물, 벽지가 너털너털하여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객실, 문짝은 떨어져 구분이 안 되는 화장실, 무더운 방에 덜덜거리는 선풍기, 우지끈하는 침대와 소파, 희미한 전등 빛, 거기에다 느릿느릿 남루한 종업원들. 우리는 지쳤기 때문에 저녁밥도 거른 채 일단 잠을 청하기로 하였다. 이 여관의 숙박료는 방 하나에 50위안쯤인 듯하다.

6월 28일. 날이 환하고, 밝은 매우 웅성거린다. 시골장이 서는 분위기이다. 시계를 본다. 아니, 새벽 4시도 아직 되지 않았다. 꿈을 꾸는 것일까? 시계를 다시 봐도 아직 이른 새벽 시간이다. 창을 열어 보니, 멀리 사람들이 모여 시장을 열고 있다. 위도가 높아 여름철은 온통 낮이라는 말이 문득 생각난다. 아침 공기는 덥지 않아 신선하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르지만 일어났다. 그 새 김기주 선생은 외출하였다.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첫째 일은 다른 숙소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어제 저녁 숙소에 대하여 별 말을 안 했지만, 눈치를 챈 것 같다. 둘째 일은 푸위현 부현장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승합차를 하루 전세 내었다. 아침 일찍 그 승합차를 타고 김기주 선생이 직접 물색한 새로운 숙소로 옮겼다. 덴마크와 중국이 합작한 쑹허(松鶴) 우유공장 안에 있는 외국인 숙소 쑹허빈관(賓館)에 도착하였다. 아주 조용한, 깨끗한 호텔이다. 냉방 시설은 따로 없어 조금은 더울 듯하다. 방 하나에 80위안 정도.

쑹허빈관에 여장을 풀고, 우리는 조사 준비를 하여 9시에 전세 낸 승합차를 타고 드디어 찐자쓰촌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간단하게 아침 요기를 하였다. 다섯이서 먹은 아침식사 비용은 50위안. 가는 길에 김기주 선생은 부현장을 만

나고 온 결과를 이야기하였다. 부현장 이야기의 요지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은 모르지만, 어제 (우리 일행이 하얼빈을 떠난 후) 상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 사람들이 푸위에 도착하면, 다른 편의는 봐 줄 수 있지만, 찐자쯔촌 주민과의 접촉은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아마 어제 그 남루한 직원의 마중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 또한 그렇지만, 다급해진 것은 김기주 선생이었다. 여기까지 와서 현지 언어 조사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단 찐자쯔촌에 가서 문제를 풀어 보자고 하였다.

푸위를 출발한 지 30분만에, 집들이 모두 나지막한 농촌마을 찐자쯔촌에 닿았다. 하루에 버스는 두 차례 다닌다고 한다. 황토길로 승합차가 지나갈 때, 양 옆으로 흙먼지가 자욱하다. 푸위현 소재지인 푸위는 년강(嫩江) 유역에 있는데, 치치하얼시로부터 약 50km 떨어져 있으며, 찐자쯔촌은 그 푸위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다. 찐자쯔촌의 정식 명칭은 “헤이룽장성 푸위현 다위얼쭈-만쭈-커얼커쯔쭈상 찐자쯔촌(黑龍江省 富裕縣 達斡爾族滿族柯爾克孜族鄉 三家子村)”이다. 한족(漢族)과 함께 소수민족인 다구르족, 만주족, 키르기즈족으로 구성된 향(鄉)이라는 행정단위의 한 마을인 셈이다. 향은 진(鎭)과 함께 현(縣)의 하위 단위이다. 찐자쯔촌이란 명칭은 이 마을의 주요 성씨가 지(計)타오(陶)·명(孟)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들은 원래 지린성의 장백산 아래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청(淸)나라 강희(康熙) 초에 변방을 수비하기 위하여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 마을의 역사와 생활에 대해서는 1961년에 중국 내몽고대학 학술 조사단에 의해 조사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거주 상황, 민족분포 상황, 교통 및 직업 등의 여러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들의 언어, 만주어를 오래 보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61년 현재 전체 호수는 101 호, 이 가운데 만주족 80 호, 전체 인구는 419 명, 그 가운데 만주족은 355 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들의 언어 사용 상황을 보면,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만주어를 잘하며, 중년층은 만주어와 한어를 모두 사용하며, 소년층은 만주어에 비해서 한어를 더 잘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촌사무실을 찾았다. 우리 나라 시골 면사무소 정도의, 마당 딸린 건물이 있었다. 여자 직원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사무실 벽에는 “생산 계획”이 도표와 함께 잔뜩 부착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언뜻 보기에는 농산물 생



<사진 3> 싼자쯔촌 사무소 앞에서. 낡은 건물과 간판이 이채롭다. 오른쪽
으로부터 연규동, 정도상, 필자, 고동호, 김기주.

산 계획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산아(産兒)에 관한 내용이었다. 산아 제한 계획인지 산아 권장 계획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여사무원은 우리의 방문 목적을 듣고 춘장을 찾으러 나갔다. 조금 후, 젊고 통통한 지(計)씨 성을 가진 춘장이 나타났다. 우리의 방문 목적을 듣고, 약간의 관심을 표하였다. 싼자쯔촌에는 280호, 1,01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1961년도 조사 당시보다 호수 및 인구수가 늘어났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만주족은 137호 444명, 다구르족 14호 87명, 몽골족 1호 6명, 오로첸족 1호 11명, 키르기즈족 4명, 한족 127호 464명이다.

만주족은 전체 인구의 43.7%이다. 만주족은 지 씨가 96명, 명 씨가 85명, 타오 씨가 115명으로 이들 세 성씨가 전체 만주족의 66.67%를 차지한다. 그리고 만주족 444명 가운데, 만주어를 충분히 구사하는 사람은 27명이며,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합쳐도 43명에 지나지 않는다. 만주어를 한 단어



<사진 4> 싼자쯔촌 마을 모습. 황토길과 밭이 펼쳐져 있고, 집이 듬성듬성 있다.

도 모르는 만주족은 72%에 해당하는 320명이다.

이들의 주요 직업은 농사이며,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주로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집을 지키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서 언어 현황을 알아보려고 요청하였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뒷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중국에는 전봇대 세우는 일이 힘이 들어 이동 통신이 발달되어 있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한참을 통화하더니, 얼굴빛이 흐려진다. 상부에 알아 보니, 어느 누구에게도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는 통역을 통해 우리의 목적과 학문적인 순수성을 내세워 설득했지만,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협조해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이 마을에서 떠나 달라고 하였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동네 한 바퀴를 돌아 보고 가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였다. 흠담으로 지은 야트막한 집이 듬성듬성 있는 마을이었다(☞ 사진 4, 5 참조). 마루에 앉아 있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사진을 몇 장 찍



<사진 5> 싼자쯔촌 가옥 모습. 토담과 지붕이 독특하다. 대체로 집이 낮은 것이 특색이다.

고서, 구어 만주어를 거의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마을, 싼자쯔촌까지 와서 주민들을 못 만난 아쉬움을 안고, 11시에 승합차에 올라 탔다.

그때 승합차 운전기사와 그 친구들이 재미있는 제안을 하였다. 적절한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오후나 저녁에 이 마을 사람을 차에 태워 우리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다. 이 제안을 놓고 우리 일행은 푸위로 돌아오는 길에 의논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헤이룽장성 민족사무위원회의 연락으로 푸위현에서 공식적으로 협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또 현 인민정부의 연락으로 촌장이 거절한 상황인데,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김기주 선생 말로는 그 운전기사 일행들이 먼저 돈을 받고서는 일을 미루고 모르는 척할 지 모르며, 설령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미끼로 우리를 협박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11시 30분, 쑹허빈관으로 되돌아온 우리는 점심식사를 하였다. 다섯이서 먹

은 점심식사 비용은 모두 65위안. 김기주 선생은 다시 부현장을 만나러 가고, 우리는 이후 대책을 의논하였다. 김기주 선생이 돌아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민 접촉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홍콩 반환을 앞둔 시점(7월 1일이 그 역사적인 홍콩 반환일)이라는 것이며, 그밖에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의 문화 시설 공개를 억제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출발하기 전 준비할 때, 만어연구소 및 민족연구소에서 조사 기간을 7월 이후로 하자는 제안을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 일정대로 강행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였다. 여기서 우선 얻은 교훈은 중국 지역 현지 조사에는 중국측 관련 기관이 제시하는 일정과 방식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날 오후 우리는 푸위 시가지를 돌아보고 신화(新華)서점에 들러 책도 사고, 인력거도 타고, 수박도 샀다. 자전거 뒤에 네다섯 명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페달을 밟아 가는 인력거의 샅은 대체로 5위안인데, 모르고 25위안을 주고 타기도 했으며, 큼지막한 수박을 10위안 주고 샀다. 우리는 내일 일단 하얼빈으로 되돌아가 다른 일정을 마련해 보기로 하였다.

6. 다시 하얼빈으로, 민속박물관과 랴오넨만쭈샹 방문

6월 29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일요일 아침이다. 쑹허빈관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8시 40분 기차로 푸위를 떠났다. 떠나기 전 만어연구소 자오 소장을 전화로 연락하였다. 우리가 다시 하얼빈으로 돌아가니, 오늘이나 내일 만나자고 하였다. 그러나 홍콩 반환을 앞두고 모든 기관장들은 비상 대기중이라서 7월 1일까지는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다.

오후 2시 15분, 하얼빈역에 도착하여, 민쭈판덴에 돌아와 여장을 풀었다. 온통 도시가 시끄럽다. 텔레비전 방송도 계속 축제 분위기다. 홍콩 반환(回歸香港) 이틀 전이다. 저녁에는 호텔 부근 쑹화강가에 있는 방홍(防洪)기념관 광장에서 홍콩반환기념잔치(回歸香港祝祭)가 열렸는데, 우리도 이를 관람하였다. 호텔로 되돌아 와서 자오 소장과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주민 접촉 문제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밖이라 한다. 우리는 북경 중앙민족대학의 장홍권(張

興權) 교수와 전화로 접촉하였다. 그 역시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였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보기로 하였다. 첫째 계획은 하얼빈시 외곽에 있는 만주족 마을을 찾아 나서는 일이고, 둘째 계획은 만어연구소의 전임 소장인 류징셴 선생을 제보자로 하여 어휘 조사를 하는 일이고, 셋째 계획은 이곳 관련 학자에게 언어조사표를 남겨 두고 기회가 닿으면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얼빈에 있는 헤이룽장성 민족박물관을 찾아 만주-통구스족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들의 자료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런 계획을 세워 두고, 6월 30일, 우리는 하얼빈의 헤이룽장성 민족박물관을 방문하였다. 박물관을 가는 길에 하얼빈 시가지를 둘러 보았다. 러시아풍 건물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었다. 민족박물관은 비교적 잘 다듬어 놓은 박물관이었다. 만주-통구스 제민족을 비롯하여, 몽고족, 회족(回族), 그리고 조선족 등의 역사, 인구, 생활풍습, 의상, 농기구 및 어로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박



<사진 6> 아청시 라오덴만주생 표지판

물관 관람을 통해 우리는 만주-통구스 제민족에 대한 여러 현황을 간접적이거나 많이 알 수 있었다. 중국의 다른 박물관이 그러하듯이, 이 박물관에도 어김없이 중국 공산당의 투쟁 역사가 그림과 사진으로 장황하게 소개되어 있었다.

오는 길에는 신화서점을 들렀다. 『中國民族百科事典』 등 책 몇 권을 샀다. 저녁에는 독특한 분위기의 회족(回族)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김기주 선생이 우리를 대접하였다. 그러나 음식이 그리 입에 맞지 않았다.

7월 1일, 일행 중 고동호 박사와 연구동 박사 둘이서 하얼빈시 남서편에 위치한 아청시 라오덴만쥬샹(料甸滿族鄉)을 방문하기로 하고 호텔을 떠났다. 8시 15분에 하얼빈역을 떠나 9시에 아청역에 도착하였다. 옛날 금(金)나라 도읍이기도 한 아청시는 신시가지로 깨끗하였다. 일행은 아청시 인민정부 근처에 몰려 있는 사람들로부터 라오덴만쥬샹을 소개받고, 택시를 타고 9시 30분 라오덴



<사진 7> 라오덴만쥬샹에서 만주어를 아는 유일한 사람, 관즈쿤 씨와 그의 가족. 뒤쪽은 그가 경영하는 가게이다.

상에 도착하였다. 전형적인 시골풍의 마을이다(☞ 사진 6 참조). 수소문 끝에 만주어를 안다는 사람을 소개 받았다. 상 인민정부 공무원이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보는 30세의 관즈쿤(關志坤)이라는 사람이었다(☞ 사진 7 참조). 그는 이 마을에서 만주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젊은 사람이 만주어를 안다니,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문어 만주어였다. 몇 해 전 만어연구소의 류 선생에게 특별 과정으로 배웠다고 한다.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일행은 그와 헤어졌다. 실제 만주족이 사는 마을을 방문하여 만주족을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매우 호뭇하였다. 기념으로 『청어노걸대』 영인본을 한 권 주고 왔다.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자, 그는 무척 기뻐하며 가보로 잘 간직 하겠다고 하였다.

그 사이 나는 현지 관련 학자 우하이주(가명) 선생을 만나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구어 및 문어 만주어 연구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연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금명간 찻자쓰촌으로 구어 만주어 현황을 조사하러 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나는 우리 사정을 잘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리들이 준비해 간 『언어조사표』와 녹음 테이프, 그리고 약간의 필요 경비를 맡겼다. 그는 완강하게 경비 받기를 거절하였다. 다만 내 힘이 좀 더 세었기 때문에 얼마간의 경비를 맡길 수 있었다. 아마도 나중에 이 녹음 테이프를 받을 수 있다면, 큰 수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류징셴 선생을 통한 만주어 어휘 조사

7월 2일, 우리 일행은 만어연구소 연구원들을 만주다판텐(滿族大飯店)으로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다. 하얼빈에서 가장 큰 만주음식점이라고 하였다. 몇 가지 만주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으며, 만주족의 여러 풍습 등에 대해서도 들었다. 만주 음식은 중국 음식보다 기름기가 적어 담백한 편이었다. 몇 겹씩 접시를 쌓을 정도의 많은 음식의 점심 값은 340위안.

이 자리에서는 상호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다시 결의하였다. 현지 언어 조사를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하되, 그 방법 및 일시는 만어연구소에서 정하는

대로 하기로 하였다. 만어연구소에서 언어 조사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측에서 그 때 맞추어 와서 함께 조사 연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하였으며, 자오 소장은 줄곧 상기된 얼굴이었다.



<사진 8> 만어연구소에서 류징셴 선생으로부터 만주어 어휘를 조사하였다.

오른쪽이 류 선생이고, 가운데는 통역하는 김기주 선생.

이 자리에서 우리는 류징셴 선생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였고 그는 이를 흔쾌히 받아 들였다. 우리들이 준비해 간 『언어조사표』에 의한 어휘 조사에 류 선생이 제보자로 응해 주기로 하였다. 류 선생이 문어 만주어를 구사하지만, 기존에 조사된 구어 만주어와 대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만어연구소에서 약 700여 어휘 항목을 녹음하였다(☞ 사진 8 참조). 나머지 300여 어휘 항목은 저녁에 호텔 객실에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류 선생의 손자가 병이 나서 올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다. 우리가 떠나는 날이 내일이라서 이제는 도저히 따로 시간을 낼 길이 없었다. 그래서 못다 한 언어 항목과 녹음 테이프를 류 선생에게 맡겨 두기로 하였다. 우리는 류 선생에게 사례로 300위안을 드렸다. 맡겨 두고 온

항목의 녹음 부분은 그 해 8월, 지린성 민족사무위원회 조선어문사업관공실 부주임 김성춘(金成春) 선생이 서울 오는 편에 보내 주었다. 그 때 김성춘 선생은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 주었다. 우리의 찐자쯔촌 조사가 뜻대로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헤이룽장성 민족사무위원회의 어떤 직원의 비협조였다고 한다. 그 직원은 김기주 부주임이 상사인 자기를 제치고, 직접 상부 기관과 접촉하고, 만어연구소, 민족연구소도 직접 연락하고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그 직원한테서 김성춘 선생이 직접 들었다고 하였다. “너희들이 해 볼 테면, 해 보라지.”라는 말과 함께.

김성춘 선생이 전해 준 녹음 자료와 앞서 현지에서 녹음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1,000어휘 수준 조사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정리 과정에서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어휘를 제외하여 모두 898개 어휘를 보고서에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자료와 이미 보고된 바 있는 구어 만주어의 서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석 과제였다.

8. 현지 조사를 마치면서

7월 3일, 책 사 모으기를 무척 즐겨하는 일행 세 박사들은 신화서점에 다시 들러 책 몇 권을 더 샀다. 아쉬움을 남긴 채 우리는 이 곳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인, 목요일 오후 3시 25분에 하얼빈 공항을 떠났다. 항공료는 1인당 왕복 453,000원. 마지막 악수를 나누면서 김기주 선생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에게 남긴 말, “나 때문에, 비싼 돈 쓰고 찐자쯔촌 조사 못해서, 선생님들 서울에 돌아가 문책 당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우리 “영도”께 갖다 드리라면서 커다란 벽걸이 민속품을 선물하였다. 우리는 대답하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찐자쯔촌 조사 못지 않게 우리는 만주어 정황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한국 시간 오후 6시 30분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일행의 구어 만주어 현지 조사 여정을 일정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 글이 앞으로 이루어질 현지 조사 연구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현지 조사는 앞으로 계속될 이 지역 언어 조사의 기반을 마련하

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어를 비롯한 알타이제어 상호간의 언어유형론적, 언어접촉사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능한 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한 중국 지역의 만주-통구스제어에 대한 조사인 만큼 시행착오도 컸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하여 얻은 의의를 챙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헤이룽장성의 가장 대표적인 만주-통구스어 연구기관인 만어연구소와 본격적으로 학술 교류 관계를 맺어, 양측이 지속적으로 학술 교류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공동으로 현지 언어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2)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하여 중국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어 만주어 연구의 현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3) 구어 만주어 사용 지역인 푸위현 썬자쯔촌 및 아칭시 라오덴만쥬생을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4) 문어 만주어 어휘 자료를 녹음하여 기존의 구어 만주어 어휘 자료와 대조하여, 음운 변화와 어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5) 중국 지역의 현지 조사 방법상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헤이룽장성의 만주어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의의이다. 논저에 따라 구어 만주어의 보존 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일상 생활에서 구어 만주어를 사용해 온 화자는 헤이룽장성 전체에서도 극소수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구나 그들이 한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만주어 속에 많은 한어 요소가 스며들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어 만주어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새삼 느꼈다.